

# 가와바타의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의 세계\*

임 증 석\*\*

---

## 目 次

---

- 시작하는 말
  - I. 작품세계의 무대 아사쿠사
  - II. 칼날 같은 여자 유미코
  - III. 여자 중의 여자 하루코
  - 맺는 말
- 
- 

## 시작하는 말

『아사쿠사구레나이단(淺草紅團)』<sup>1)</sup>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가 1929년에서 1930년에 걸쳐 쓴 소설인데,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31세였다. 이 소설은 6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一」에서 「三十七」까지는 『도쿄아사히 신문(東京朝日新聞)』夕刊에 1929년 12월 12일부터 다음해인 1930년 2월 16일까지 37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三十八」에서 「五十一」까지는 『신초(新潮)』의 1929년 9월호에 「아사쿠사아카오비카이(淺草赤帶會)」라는 제목으로 발표되고, 「五十二」부터 「六十一」까지는 『가이조(改造)』의 1930년 9월호에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소설은 신문소설로 알려졌지만 지금 살펴본 대로 일부만이 그러하다. 그 일부도 연재소설이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씩 게재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 그것도 37회로 끝나고 말았으니 가와바타로서는 연재회수에 섭섭한 생각이 있었던 듯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의 일(『淺草紅團』のこと)」<sup>2)</sup>에서 집필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 대하여, 「나는 노트의 50분의 1, 혹은 10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33-143)라 말하고, 이어서 「100회나 150회의 연재가 허락」(33-168)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신문연재로 끝내지 않고 잡지에, 그것도 두 잡지에 뒷부분을 발표했으니 이 작품에서도 역시 그는恣意的인 발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未完으로 끝났는데, 이 또한 그의 작품발표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이 논문은 2001년도 충남대학교 교내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함

\*\* 충남대학교 교수 일본근대문학

1) 이 논문은 『川端康成全集』 전37권(新潮社, 1982.10~1984.5)의 第四卷에 수록된 『淺草紅團』을 텍스트로 했다. 이로부터의 인용문에는 말미의 ( ) 안에 숫자가 있는데, 이는 第四卷의 쪽수이다.

2) 이 논문에 있어서 작자를 밝히지 않고 제목만 제시한 글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은 『아사쿠사구레나이단(淺草紅團)』인데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이란 「아사쿠사의 구레나이단」, 즉 「아사쿠사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구레나이단」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설에는 주인공이 있다는 것이 통념이라고 한다면 『아사쿠사구레나이단』에도 주인공이 있을 것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의 이름으로 봐서 구레나이단의 단원 가운데의 어느 한 사람이 주인공일 것이라는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구레나이단의 단장 유미코(弓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미코는 다른 소설들에 비해 그 주인공으로서의 요인이 부족하다. 유미코는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나, 후반부에서는 그 활동의 거의 모두를 하루코(春子)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주인공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주인공도 마찬가지이다. 긴네코 바이코(銀猫梅公)인지, 아니면 아카키(赤木)인지 아는 게 쉽지 않다.

작품론이란 작품에 대하여 논한다는 뜻일 터이니, 여기에, 작품의 세계를 규명하는 데에 第一義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糾明은 解說이라는 語義도 포함하고 있으니 작품론에 해설적 요소가 들어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은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의 작품세계를 해설적 방법도 도입하면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 주인공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前述한대로 이 소설에서 주인공 운운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니, 주요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그렇다고 그 많은 등장인물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유미코와 하루코의 두 여자만으로 범위를 좁혀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 두 여자의 역할을 합하면 주인공으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사쿠사 그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작품세계에서 아사쿠사가 가지는 의미는, 아니, 아사쿠사의 역할은 단순히 배경으로서의 의미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등장인물 내지 주인공으로서의 그것들을 지니거나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아사쿠사에 대해 살펴본 뒤, 주요등장인물 유미코와 하루코에 대하여 고찰해가면서 작품세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I. 작품세계의 무대 아사쿠사

「아사쿠사는 만인의 아사쿠사이다. 여기는 인간의 시장이다. 살아있는 도쿄의 견본이다. 환락의 백화점이다」(26-375)는 「아사쿠사 활동가(淺草活動街)」라고 하는 한 쪽도 못되는 짧은 글의 冒頭이다. 또 「아사쿠사」의 「아사쿠사는 아사쿠사(淺草は淺草)」欄의 모두에는, 「아사쿠사는 『도쿄의 심장』이며, 또 『인간의 시장』이다. 만민이 함께 즐기는—일본 제일의 변화가이다. 따라서 또 환락의 꽃 그늘에 죄악의 냄새가 떠도는 암흑의 거리이기도 하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아사쿠사는 아사쿠사이다」(26-378)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에게는 아사쿠사(淺草)에 관한 글이 많은데 위의 두 인용문은 짧지만 그의 아사쿠사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한다. 이 두 인용문에서 중복된 것은 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열거해보면, 만인의 아사쿠사·인간의 시장·살아있는 도쿄의 견본·환락의 백화점·도쿄의 심장·일본 제일의 변화가·환락의 꽃 그늘·죄악의 냄새·암흑의 거리 등이다.

세키이 미츠오(関井光男)는 「『아사쿠사구레나이단』과 아사쿠사의 도시공간」이라는 논문에서 아사쿠사를 「악의 장소」<sup>3)</sup>로 규정하고 있다. 작품의 세계에도 아사쿠사에는 「범죄의 냄새」(58)가 심하고, 「보통사람보다 형사 쪽이 많」(58)다고 소개되어 있으니 여기가 악의 장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三十二」에는 우체국 앞에서 거지 소년이 물건을 팔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니 엄밀히 말하면 거지가 아니지만 작품세계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 「세 살 정도의 계집아가 그의 발 밑의 아스팔트에 쓰러져 앵앵 울고 있다」. 아니, 일부러 「올려놓은 것이다」. 아이가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아이를 빌려온 것인데 「잘 우는 아이는 빌리는 값도 비싸다」(131)는 것이다.

「四十一」에서는 話者인 「내」가 7월 13,4일 무렵의 신문기사에 간담이 서늘해졌다며 이를 소개하고 있다. 300여 제사공장이 가격폭락으로 휴업을 했는데, 이것이 온 나라로 번져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만 명 가까이의 여공들이 실업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그녀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관련이 있는 자본가와 싸울 것이라고 스스로 대답한다. 그런가 하면 「그러나 그것은 그녀들 모두는 아니다」고도 말한 뒤, 「그 모두가 아닌 그녀들을 아사쿠사의 수상쩍은 투쟁이 한 무리가 맞으려 가려 하는 것 같다」(158)고 한탄한다. 그리고도 작자 가와바타는 직성이 안 풀렸던 듯 「四十八」에 「세 명의 사내가 여공 유괴단을 失業의 신슈(信州)로 파견하려고 하는 밀담」(170)을 나누는 장면을 설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게 한다. 「신슈의 경찰이며, 사회운동가를 경계하는 것보다」 유괴단인 「그들을 체포해 달라」(171)고.

이와 같은 악의 장소로서의 아사쿠사이므로 어느 「여학교는 관음보살을 참배하는 외에 아사쿠사에 가는 것을 금」(178)하고 있는 것일 게다. 작품세계에 등장하는 많은 악한 일들 가운데서 거지물건팔이와 여공유괴단의 두 이야기를 뽑아 소개하였는데, 전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여 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동정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투쟁이나 사내들에게서는 악의 늪에서 나온 사자의 모습을 본다.

악이란 결국 생존을 위한 노력이 이기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악은 여러 가지 형태로 分化되어 나타날 수 있다. 아미노 요시히로(網野義紘)는 「아사쿠사와 가와바타 문학」에서, 『아사쿠사구레나이단』에는 「불황하에서 도쿄대학(東大) 졸업생의 취업률이 약 30%였던 1929년 무렵의 아사쿠사의 世相·風俗이 묘사되어」<sup>4)</sup> 있다고 말한다. 작품세계에서도 「불경기」라고 하는 말이 散見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세계 全面에는 불경기로 인한 생활고가 가슴을 찌르는 아픔으로 깔려 있다.

「二」에는 연못(瓢箪池)에서 잉어먹이로 준 보릿겨덩이를 건져먹고 있는 사내의 이야기가 설정되어 있다. 「복사뼈의 위까지 물에 담그고 일곱 자 정도의 대나무로 물 위의 보릿겨덩이를 모아서 우뚝 선 채로 우적우적 먹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미처도 단단히 미쳤구먼 잉어 똥을 뺨땅치고 자빠졌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웃는다. 그래도 「열 대여섯 덩이의 보릿겨를 먹어치우자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게다가 정말로 위풍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다」(54). 이를 보고 아키코(明公), 즉 유미코(弓子)는 「미치광이의 흉내라도 내지 않고는 연못의 보릿겨를 먹을 수 있나요?」(55)라고 말한다.

3) 関井光男 「『浅草紅団』と浅草の都市空間」(『国文学』〈学灯社1987.12〉)67P

4) 網野義紘 「浅草と川端文学」(羽鳥徹哉編集『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川端康成 旅ふるさと』〈至文堂、1999.11〉)97P

이렇게 라도 해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련한 인생을 독자들은 이 사내에게서 본다. 이는 생명이 소중해서도 아니고 아름다워서도 아니다. 죽을 수 없어서 사는, 아니 비탈길에 버려진 돌멩이가 굴러가듯 그저 이어져 가는 생명인 것이다. 유미코가 말하는, 아사쿠사에 많다고 하는, 「인간의 처참하고도 흉한 모습을 상품으로 하는 거지」(63)들도 같은 부류의 인생들인 것이다. 「警視庁 관하만에 사만이나 오만의 범죄소년이 생」(87)진 것도 다 가난 때문이라고 화자인 「나」는 주장한다.

『아사쿠사구레나이단(淺草紅団)』의 세계는 악의 세계임과 동시에 난센스의 세계이다. 「아사쿠사 부랑인이 먹다 남은 것을 얻어다 살고 있다는 것을 제군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영세민이나 노동자가 부랑인에게 그 얻어 모은 것—즉 먹다 남은 것의 먹다 남은 것을 한 그릇에 이 전 삼 전에 사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87)<sup>5)</sup>라고 「나」는 말한다. 「十四」에서 이다. 「아사쿠사」의 「아사쿠사의 분석」欄에도 「부랑인은 음식점의 남은 것을 얻으러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 그 부랑인의 먹다 남은 것을 또 영세민이나 노동자가 사러 온다」(26-384)고 하는 같은 내용이 있다.

「二十二」에는 유미코(弓子)가 아카키(赤木)를 베니마루(紅丸)로 피여들여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다. 「촛불도 하나하나 꺼지고 밤중에는 칠흑 같은 어둠—거지와 나란히 누워있기도 했었어. 정말이야, 댁 거기에 거지도 섞여 있었던 거 알아? 그게 오히려 제일 예의바른 부부였어. 밤중에 옥상정원으로 살짝 빠져나간 거 거지부부뿐이지 않았어?」(106)는 유미코가 아카키에게 한 말이다. 간토 대지진(関東大地震)으로 집을 잃었던 때를 회상하며 한 말이다. 그때 「후지심상소학교(富士尋常小学校)가 불타 무너진 벽과 유리창과 흑판과 책상 같은 것을 대충 치우고 노숙을 하거나 움막에 사는 사람들을 맞았」는데, 「일층에서 삼층까지의 교실에 삼천 명 가까이 집어넣었」(106)었다. 이때 유미코도 언니 치요와 함께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거지부부는 왜 밤중에 살짝 옥상정원으로 빠져나갔는가. 부부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고 있는 곳을 빠져나간 것은 거지부부뿐이었다면 다른 부부들은 그 일을 어디에서 한 것일까. 옆의 사람들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남들이 먹다 남은 것을 거지들이 얻어다 먹다 남은면, 이것을 또 영세민들이 사다 먹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체면 없이 영위하는 사랑의 행위를 거지부부만이 예의바르게 남들의 눈을 피해 영위하는 것도 모두 난센스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진은 도쿄를 여지없이 파괴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소란이 조금 가라앉자 커다란 건축의 死骸를 공병대가 폭파하며 돌아다녔다. 십이층탑도 그 중의 하나」(102)였다. 이때를 회상하며 유미코는 말한다.

옥상의 탑은 구경꾼들이 수없이 한 시간이나 기다렸잖아. 그러자 화약의 폭음으로 煉瓦가 폭포처럼 무너지는 것이 훔쳐 보이고, 그랬지, 한쪽만이 얇은 칼처럼 남았는가 했더니 제 이의 폭음으로 칼도 무너져버렸지. 그때 말야 학교옥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세, 만세) 했어. 그리고 일시에 와하고 웃지 않았어? 그렇지만 칼 같은 것이 무너지자마자 연와더미에 사람들이 세까망게 뛰어올라 갔지. 거기에 깜짝 놀랐어. 연와더미 점령. 멀리에서 보고 우리들은 모두 울음이 터질 것 같이 기뻐서. 그렇지만 인간들은 왜 탑이 무너지자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화약연기가 나는 연와더미에 뛰어 올라가기도 하는 거지? (102)

5) 이 소설에서의 「나」는 話者이고, 「제군」은 讀者이다.

당시의 사람들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이와다 미츠코(岩田光子)는 『가와바타 문학의 제상—근대의 유염—』에서, 「비상시에 있어서의 인간의 심리라던가, 常軌를 逸脱한 행동을 통하여 연와더미 점령 등이라고 하는 소박한 정복욕, 그리고 파괴의 기쁨, 다음에 올 건설에 대한 의욕, 형태가 있는 것이 무로 돌아가는 허탈감, 충실, 쇠약, 거기에 갖가지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卓見이다.

『아사쿠사구레나이단』에 있어서의 아사쿠사는 이와 같은 지진으로 인한 파괴로 형성된 정신세계를 사람들이 체험하고 나서 —新해가고 있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세계의 감상에 도움이 된다. 작품세계에는 「나도 제군 앞에—다이쇼(大正) 지진 뒤의 구역정리로 새로 그려 바뀐 『쇼와(昭和)의 지도』를 펼치려 한다」(52)라고 冒頭에서 말함으로 이 소설이 지진 뒤에 변화된 아사쿠사를 쓰려 한다는 作意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와다 미츠코는 앞에 인용한 논문에서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은 아사쿠사 각지에 출몰하는 불량 그룹 『구레나이단』의 단장 유미코를 중심으로 단원 소년소녀들의 행동을 좇으면서 대지진 후 일신된 『쇼와의 지도』를 펼쳐 아사쿠사의 풍속을 독자 『제군』에게 『나』인 방관자(여행자)가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다」(7)고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필자도 동감이다.

焼滅과 破壊 뒤에는 新生을 위한 建設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근대로 가는 건설에는 콘크리트가 없어서는 안 된다. 작품세계에는 콘크리트라는 말이 몇 번인가 등장한다. 「三十一」과 「三十二」는 그 제목이 아예 「콘크리트」이다. 「三十一」에는 공동변소의 청소를 하는 어린이들이 등장한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네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서도 아니다. 「공원의 애 보는 소녀에게 물어보니, 「좋아서일 거예요, 저게. —자기 집보다도 훨씬 모던하고, 저런 훌륭한 집을 쓸 수 있는 건 변소밖에 없으니까 기분이 좋아 청소를 하는 거 겠지요」(129)라고 대답한다. 「나」는 「어린이들이 공동변소를 사랑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매력이 아닐까」라 생각하고, 다시 「어린이들은 근대식의 건축의 매력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린이들은 모모야마고텐(桃山御殿)의 茶室보다도 콘크리트 변소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130)라고도 생각한다.

작품세계는 콘크리트라는 말을 모던이라든가 첨단적이라는 말과 함께 쓰기도 하고, 콘크리트라는 물질 속에 모던이라든가 첨단이라는 現象을 용해시켜 넣어놓고 있다. 사실 첨단이라고 하는 현상을 모던이라고 하는 현상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적어도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두 단어가 同義語는 아니라 해도 類義語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작품세계는 이 두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日美(和洋) 재즈 합주 리뷰』라고 하는 亂調의 구경거리가 1929년형의 아사쿠사라고 한다면, 도쿄에 단 하나의 외래 『모던』 리뷰 전문으로 시작한 카지노 호리는 지하철 식당의 침탑과 함께 1930년형의 아사쿠사」라 하고는, 이들 외의 것으로 「에로티시즘과 난센스와 스피드와 시사만화풍의 유머와 재즈 송과 여자의 다리—」(75~6)를 들고 있다.

아사쿠사는 사에구사 야스타카(三枝康高)의 말처럼 「도쿄에서도 극히 특수한 공기를 가진 지역」(8)이다. 배에서 학교에 다니는 소년도 있다. 이 소년은 등교했다 부모가 배로 데리러 오지 않으면 공원에서 밤을 새기도 한다. 우에다 마코토(上田真)의 말처럼 「현대인이 대에도(大江戶)의 풍속화(絵草紙) 그대로의 장대 새잡이(鳥刺)로 변한다고 하는 시대역행의 변모」(9)를 하는 사람도 있다.

6) 岩田光子 『川端文学の諸相—近代の幽艶』(桜楓社、1983.10)134P.  
 7) 岩田光子 『川端文学の諸相—近代の幽艶』(桜楓社、1983.10)128P.  
 8) 三枝康隆 『川端康成入門』(有信堂、1975.11)195P.  
 9) 上田真 「『浅草紅団』の内在的意識」(川端文学研究会編『川端康成の人間と芸術』 <教育出版セン

무대에서는 헤안 시대(平安時代)의 궁녀가 한가롭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천년이나 시대를 역행시키고 찰스턴을 너무 추어 졸도하기도 한다. 식도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여 배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박은 사내는 천하에 단 한 사람뿐인 배에 입이 있는 남자로서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살아간다.

아사쿠사에는 여름이 되면 연못(瓢箪池)의 수초처럼 노숙자가 갑자기 불어난다. 그들에게는 공원의 벤치나 남의 집 처마 밑이 부자들의 호텔 침대가 된다. 오백인지 육백인지 모를 정도의 이들에게는 그나마 잠자리가 모자란다. 자세히 보니 「들쥐 두세 마리가 벤치로부터 늘어진 노숙자 발의 현 고무버선을 깔고 있다」(189). 이들 노숙자라든가 일용잡부, 녀마주이 같은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를 고카이야라고 하는데, 이들은 대개가 14,5세 이하의 계집애이거나 40을 넘은 여자들이다.

무희들은 「스타킹레스라해서 일부러 맨다리를 보이」(77)는가 하면, 이들 무희들의 「근대풍으로 화장을 한 나체의 춤을 거지나 부랑인들이 바라보고 있」(81)는 곳이 아사쿠사이다. 연돌의 피뢰침까지 훑치는 소년이 있는가 하면 오층탑 위에서 기거하는 소년들도 있다. 불경기로 얻어먹기가 힘들자 받은 핫김에, 그리고 기도라도 하는 심정으로 「현 양동이를 두드리면서 누더기를 깃발처럼 흔들며 거지 떼가 취해 노래하며 춤을 춘다」(193).

정상적인 정신으로 본다면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사쿠사에서는 설세없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작품세계는, 「아사쿠사는 커다란 정신병원이다」(169)고 했을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래 계속해서 급속히 근대적 성숙을 이루어 가고 있었으나, 아사쿠사로 눈길을 고정시키고 살펴보면 옛 전통의 뿌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신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錯雜한 混亂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자 가와바타는 「아사쿠사」의 「아사쿠사 분석」欄에 「오십 년을 살았으나 도저히 현실의 아사쿠사, 살아있는 아사쿠사의 진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26-383)고 아사쿠사通인 소에다 아젠보(添田唾蟬坊)의 말을 소개하고 있다. 아사쿠사는 그만큼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곳인 것이다. 언뜻 보면 아사쿠사는 아무런 가식도 없이 벌거숭이인 채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深淵의 밑바닥처럼 신비를 감추고 있는 세계인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12층탑이 무너지고 새로이 6층탑이 세워진 것으로 상징되는, 구질서와 가치관이 파괴되고 새로운 그것이 당시의 아사쿠사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사쿠사는 항상 모든 것의 낡은 틀을 녹여서는 새로운 틀로 바꾸는 鑄物場」(75)인 것이다.

## II. 칼날 같은 여자 유미코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주요등장인물임에 틀림없는 유미코(弓子)는 십 팔구세의 아가씨로 구레나이단(紅團)의 단장이다. 구레나이단이란 아사쿠사를 활동무대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소년소녀의 불량단체이다.

유미코의 외형적 특징은 변장에 능하다는 것이다. 변장은 변신을 위한 것인데, 그녀의 변신은 피아노 아가씨·악기점 아가씨·자전거의 젊음이·단발머리 오유미·표 팔이 아가씨·땡은 머리의 아가씨·다마키자 아가씨·오시마의 기름 팔이 아가씨로 폭이 넓다. 이와 같은 변신으로 본모습을

감춘 그녀는 아사쿠사의 어디에라도 출몰한다. 그녀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일정한 직업이 있다면 이것이 방해가 되어 변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미코는 여자이면서도 여자이기를 거부하는 여자이다. 작품세계는 그녀의 출생과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잘라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의 그녀를 등장시킨다. 그 해에는 마침 간토 대지진이 있었다. 아니, 작자 가와바타는 지진 이후의 아사쿠사, 지진 이후의 유미코를 『아사쿠사구레나이단』에 쓰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진 때 유미코에게 무엇인가의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도쿄의 사람들에게는 지진 자체가 그들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놓은 일대사건이었다. 그러니 이 사건 속에서 유미코의 무엇인가의 일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미코의 무엇인가의 일, 그것은 언니의 사랑이었다. 유미코 자매가 지진으로 집을 잃고 후지 정상소학교(富士尋常小学校)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前章에서도 언급했는데, 이때 유미코의 언니 치요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했던 것이다. 상대는 아카키(赤木)라는 浮浪人이었다. 그때 밤이 되면 아카키가 와 밥주걱으로 치요의 머리를 쿡쿡 찢어서 깨워 데리고 나갔던 것이다. 그들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性愛도 곁들여진 것이라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다. 유미코는 이들의 사랑을 동경했다. 훗날 그녀는 아카키에게 「어린 나는 언니의 사랑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자신을 언니로 견주어 사랑의 연습을 했지」(80)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치요가 아카키에게 버림을 받자 유미코는 자신의 여자라는 것을 버릴 결심을 한다. 언니가 버림을 받은 그날밤 일도 유미코는 아카키에게 회상하며 말한다. 버림을 받고 「언니는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덜덜 떨었지. 무엇인가 찾았어. —나의 길게 땀은 머리끝이 손에 잡혔던 거겠지. 그 머리칼을 입에 틀어넣고 영영 울었어」(109)라고. 그런데 치요가 왜 동생 유미코의 머리채를 입에 틀어넣고 울었는가는 알 수 없다. 단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머리칼이란, 특히 땀은 머리채란 여자의 상징물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유미코는 「그런 더러운 머리칼 같은 거 깨끗하게 싹싹 잘라버렸」(109)던 것일 게다. 머리칼이 더럽다는 것은 머리를 안 감아서이겠는가.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면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미 버리려고 마음먹은 것이라면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없다. 아니, 더러운 편이 버리기 쉽다. 그러니 유미코에게 있어서의 자기의 머리칼은 더러웠던 것이다. 여기에, 자기의 머리칼이 더럽다고 생각해야 하는 자신의 여자 됨에 그녀의 슬픔은 있었던 것이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이는 그녀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이 싫은 것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미코가 여자이기를 거부한 것은 이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지진의 아가씨야. 지진 가운데에서 태어난 거야」. 「남자가 되는 거다. 여자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지. 몇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 위에서 몸에 걸친 것 없이 다리를 부딪치며 누워있자면—여자 애는 여자가 싫어지는 거지」(106). 유미코의 말이다. 많은 사람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옷을 벗고 있는데 여자만이 수치를 느껴야 한다는 현실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가 되자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유미코가 남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언니 치요의 失戀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그녀는 언니를 버린 아카키에게 敵意를 품게 되었고 복수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아카키에게 적의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戀情 또한 품고 있었던 것이다. 유미코가 치요의 동생이라는 것을 아카키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유미코는 그 아카키에게 「나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버릴 거야. 언니가 미칠 정도로 폭 빠진 사람에게 나도 빠져 미치고 싶어. —그야 언니를 위해 펍 억울하다고 생각했지」(79~80)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언니를 위해서는 복수를 해야 하지만 마음의 한 편은 그에게 기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여기에서의 그 사람이란 아카키라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유미코는 「절반은 남자인 셈치고 살아온 나에게 남자 같은 건 아무것도 아냐!」(74)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의 절반은 남자란 中性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절반은 남자라 할지라도 절반은 여자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 절반의 여자 가운데에서 다른 여자들의 여자보다 더 진한 여자를 본다. 여기에서 그녀의 말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 보면 이렇하다.

마음껏 남자가 좋아저서, 그리고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즐거울까 하고 생각해. (중략) 나는 여자가 아냐. 언니를 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여자 같은 건 안되겠다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사내들이란 정말로 어리송하더라고. 아무도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는 거야. (76)

유미코가 여자를 버린 데 대한 未練과 悔恨, 그리고 다시 여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期待心理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는 표현이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나는 남자와 있으면 자기를 항상 계산하는 거야. 여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과 여자가 되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저울 양쪽에 올려놓고—그리고 마음만 삭막해지고, 쓸쓸하기만 해!」(77)라는 말이 신빙성을 더해준다. 그리고 위의 76쪽에서 인용한 말은 아카키에게 한 말이니 여기에서도 그녀의 마음이 아카키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미코의 외면적인 특성으로 그녀의 변신을 든다면 내면적인 특징으로는 면도날 같은 날카로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十七」에서 긴네코 바이코(銀猫梅公)는 「면도로 유미코의 목의 솜털을 밀면서 그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유미코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또 그 「날카로운 면도날의 냄새를 유미코에게서 느꼈!」(95)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날카로움이란 무엇인가. 이와다 미즈코는 『가와바타 문학의 제상—근대의 유염—』에서, 「유미코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다고 한다. 그 광물질의 차가움에는 청결, 영리, 꾸밈, 순결 등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sup>10)</sup>고 말하는데, 卓見이다.

「날카로운 면도날은 넘기 쉽다, 흐린 날의 겨울 강 위에서 유미코에게 신경을 쓰면서 바이키치의 얼굴은 창백해지기 시작했는데—!」(96)는, 유미코와 아카키를 태운 베니마루를 바이코가가 저었는데, 그때의 한 단면에 대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이제 배 안에서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독자들에게 안겨준다.

베니마루에 유미코와 아카키가 타고 있었던 것은 유미코가 언니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아카키를 유인해 들였기 때문이었다. 아카키는 유미코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그려준 약도를 보며 베니마루를 찾는다. 그때 강가에 「배는 2,30척이었는데, 그 배 한 척의 삿대에 여자의 검은 비단양말이 한 켤레 기다랗게 널려 있!」었고, 그는 이것에서 「대담한 표시!」를 본다. 그리고 그는 「몇 번인가 피의 비를 피해 가는 자의 빠른 느낌으로 이것을 위험신호라고 이해!」(82)했던 것이다.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은 바이코가 먼저 느끼고 이것이 독자들에게 전이되었던 것인데, 실은 그전에 아카키가 먼저 느꼈던 것이다.

아카키가 배 안에 들어갔을 때 유미코는 잠들어 있었다. 그 잠든 모습은 아카키에게 여자를 느끼게 하는 데 충분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발바닥조차도 「분홍빛 조개 장식 같은 발바닥!」으로 보였고, 「양말을 신지 않은 다리가 낭창낭창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다. 「소년처럼 청결한 다리!」(96)로 보였다. 그의 눈은 「빨간 스커트가 올라가 양말 끝 밴드에 눌린 자국!」(97)을 보기도 한다.

잠을 깬 유미코는 아카키에게 창문을 닫도록 한다. 그러자 선실은 「어두운 밀실!」이 되었다. 「

10) 岩田光子 『川端文学の諸相—近代の幽艶』(桜楓社、1983.10)129P.



사내는 유미코를 단번에 안을 기세로 덤벼들었다. 거기에는 이미 그녀는 있지 않고 그는 침구 위에 쓰러졌다」(97). 그런 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 아니, 이야기를 한 것은 유미코이고 아카키는 주로 듣고 있었다. 이야기는 유미코의 언니 치요와 사내, 즉 아카키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카키는 처음에는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이야기 도중 「유미코는 흰 외투의 포켓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어」 「亜硫酸丸을 줄줄 손바닥에 쏟아놓고는 눈을 힘없이 가늘게 뜨면서」 「한 알에 0.0005의 아비산이 들어있어. 한 병에 오백 알인데 몇 병 죽을 수 있을까. 이 병—이래봐도 나의 快藥이지」(113)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

「내가 만약 언니처럼 닻이 좋아진다면 이것으로 죽을 생각이었지. 죽어도 좋을 정도로 나는 닻을 만나고 싶었어. 닻이 나를 여자로 만들어 준다면이지만 말이지」

라고 그녀는 사내의 팔을 부드럽게 쥐고, 그의 손바닥에 아비산환을 여섯 알 떨어뜨리면서,

「죽는다는 것 같은 거 거짓말이라 한다 해도—죽어도 좋아 라고 단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독약을 포켓에 넣고 죽는다고 하는 편이 사랑의 기쁨이 크지 않겠어? —넌에게 이거 먹어버릴 테니까.」

아카키가 쓴웃음을 지면서 약을 버리려 하자,

「안돼. 아깝잖아」라며 유미코는 사내의 손바닥에 입을 대고 환약을 넣었는데, 아름다운 앞니로 오독오독 씹으면서 눈 가득히 과랑게 웃고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사내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사내의 목에 달려들었다. 입술을 밀어 넣듯이 입을 맞추었던 것이다. —사내는 독약에 혀를 찼다. (144~5)

유미코가 마음 한쪽에서 아카키를 얼마나 동경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며, 유미코가 자기 자신을 아카키가 여자로 만들어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나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결국 아카키는 또 한 번의 유미코의 아비산에 의한 공격으로 「일순 새파래지며 폭하고 앞으로 쓰러졌다」(117)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카키는 죽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다카하시 마리(高橋真理)는 「아비산과 망원경—『아사쿠사구레나이단의 방법』—」에서 「아비산의 치사량은 현재 0.1그램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미코가 가지고 있는 한 병 전부로도 어른 두 명과 유아 한 명을 겨우 죽일 수 있는 양이다. 유미코가 아카키에게 『죽음의 입마춤』을 하기 위해서는 입에 2백 알을 넣지 않고는 안 되는데, 유미코가 입에 넣은 것은 겨우 0.003그램에 지나지 않는다」<sup>11)</sup>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카키가 죽었는가 아닌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유미코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비산을 입에 넣고 키스를 하고 나서 유미코는 아카키에게 「지금 것은 연극이야」(116)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에게는 그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재차 아비산의 공격을 했고, 그 공격에 아카키는 「일순 새파래지며 폭하고 앞으로 쓰러졌다」던 것이니 유미코에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작자 가와바타가 아비산의 치사량이 0.1그램이라는 것을 모르고 0.0005의 아비산환 여섯 알을 유미코로 하여금 아카키에게 먹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미코에게는 아카키를

11) 高橋真理「亜硫酸と望遠鏡—『浅草紅団』の方法—」(羽鳥徹哉編『日本文学研究資料新集27 川端康成日本の美学』〈有精堂、1990.6〉)120P.

죽이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아카키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유미코의 아카키에 대한 감정은 愛憎,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언니를 미치게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한 미움 및 그로 인한 복수심과 언니가 미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을 자기도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감정이 유미코의 가슴에는 동시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비산의 키스를 한 뒤 「지금 것은 연극이야」라는 말에 이어 「택과 하지 않으면 나에겐 입맞추는 것 같은 거 할 수가 없잖아」라고 말 한 것을 보면 유미코의 아카키에 대한 감정의 愛憎 중 愛쪽이 컸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그에게 치사량의 아비산을 먹였을 것이다.

필자는 「날카로운 면도날은 넘기 쉽다」는 표현이 베니마루 안에서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준다고 했다. 유미코가 날카로운 면도날 같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날카롭기는 하지만 면도날이 넘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 유미코의 면도날 같이 날카로움은 긴네코 바이코에 의해서 具象化된다. 고양이잡이였던 그는 고양이가죽을 날카로운 칼로 벗기는 감촉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 감촉을 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또 이발사가 된 것이다. 그는 말한다. 「배를 한 일자로 싹 그어 아직 피가 뜨끈뜨끈한 가죽을 짹 짹 벗기는 거 괜찮은 맛이. —하지만 사람의 배를 가르게 될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음식점 요리사나 이발사일까」(95)라고. 「외과의, 요리사, 이발사—이 셋에는 공통의 감각이 있」(95)다. 그래서 그는 이발사의 올챙이가 된 것이다.

아카키는 유미코에게서 칼날 같은 날카로움을 보고 그녀를 낚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녀의 「假裝에 낚였」(94)던 것이다. 낚으려면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그녀를 낚아채는 역부족이었다. 천하의 은고양이 바이코(銀猫梅公)라 할지라도 구레나이단의 단장 유미코를 낚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니 그녀에게 낚여 하수인으로서 그녀를 따라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아카키와 같이 탄 배까지 저어야만 했던 것이다. 고양이잡이 바이코는 그 날카로운 칼 유미코로 고양이를 요리하고 싶어, 사랑이라는 요리를 하고 싶어 그녀를 손에 넣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녀가 쥐어준 면도날로 이발사가 되어 그녀의 날카로움을 손질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아가씨 유미코는 변장의 명수이기도 했는데, 그녀가 변장을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아카키를 찾으려 해서이다. 아니 어쩌면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실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둘 중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 다시 변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를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변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베니마루의 사건 이후에 작품세계로부터 자취를 감추었던 그녀가 작품세계의 終章에 「오시마의 기름팔이 아가씨」(210)로 변장을 하고 돌연히 나타나 한다는 말이 「사람을 찾고 있다」(211)였던 것이다.

「二十九」에서 「나」는 유미코인 「아름다운 아가씨가 남자에게 보였을 때에는 날카로운, 그리고 넘기 쉬운 칼날 같은 우울을 제공은 그녀 가운데에서 느끼지 않는가?」(123)라고 묻는데, 여기에서는 『고도(古都)』에서의 신이치의 얼굴이 想起된다. 신이치는 사람들로부터 가끔 名刀 같다는 말을 듣는데, 그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격렬하게 타오를 때였다. 그런데 그는 치에코를 만나면 얼굴이 명도 같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사쿠사구레나이단』에서의 유미코는 남자를 만나면 칼날 같이 우울한 모습이 된다. 자기의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도 자기를 여자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칼날 같이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칼날 같이 명랑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그런 남자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변장을 계속할 것이다.

### Ⅲ. 여자 중의 여자 하루코

유미코(弓子)가 절반만 여자라면 하루코(春子)는 여자 중의 여자이다. 하루코가 여자 중의 여자가 되기까지는 來歴이 있다. 구레나이단원들 중 그들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가 다른 단원들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 인물은 바이키치와 하루코이다. 그들이 단원들의 인생의 발자취를 대표한다 해도 좋기 때문일 것이다. 전술한대로 이 논문은 유미코와 하루코를 중심으로 하는 것임으로 하루코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만 살펴보며 고찰하고자 한다.

하루코는 가난한 가정의 딸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의집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열여섯 살 때까지는 치바(千葉)의 후나가타(船形)에 있는 여관에서 식모살이를 했다. 그러면서 도쿄에 가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마침 도쿄에서 온 피서객의 추천해주어 아사쿠사의 미용실(髮結屋)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불량소년에게 속았던 것이다. 그리고 소년은 그녀를 데라사카(寺坂)라는 불량배에게 팔았다.

하루코는 뚜쟁이 아줌마에게 속아 그녀 집 이층에 있는 데라사카의 방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날 아침에 아줌마 집 이층에서 눈을 뜨자 오하루(お春)는 잠자리에서 알몸이었다. 놀라서 허리에 손을 대어봤지만 역시 알몸이었다. 남자는 없다. 벌떡 일어나서 전기를 켜자 경대 속에 하얀 나체가 서 있다. (중략) 그녀의 몸에 걸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당황해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자기의 알몸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려운 듯 부끄러워 무릎을 오므렸다 펴며 덜덜 떨었다. 울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몰랐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일어났으나 몸돌 바를 모르겠다. 경대 앞에 앉아 알몸을 보니 오히려 안정이 되었다. 자기의 알몸이 왠지 이상하게 보였다. 갑자기 울다 그쳤을 정도다. 계단 밑을 살짝 살펴보고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녀는 그녀의 알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또 계단 밑을 살펴보고 기어 돌아와서 그녀는 여자의 기괴한 모습을 가만히 거울에 비춰보고—옆으로 쓰러져 엎드리더니 울려다 웃기 시작했다. 다른 여자의 탄생이다. (200~01)

이렇게 하여 그녀는 완전히 다른 여자로 태어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그녀의 여자는 숙명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그냥 그러한 여자였으나, 나체로 남의 이층 빈방에 닷새동안이나 방치된 상태에서 숙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여자가 된 것이다. 유미코는 여자이기를 거부하여 남자가 되려했으나, 그녀는 더 철저히 여자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자가 되었던 것이다.

철저히 여자가 된 하루코는 「아줌마네 이층의 알몸 잠자리로부터」 공기총 오락장(射的屋)에 「양장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202). 양장은 데라사카에게 부탁하여 샀을 것이다. 「알몸의 닷새 동안에 그녀는 열렬하게 데라사카를 사랑하기 시작했다」(204)고, 스스로 그녀는 데라사카의 신부(お嫁さん)(203)가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기총 오락장이 그녀의 아사쿠사 생활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202).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자신을 고마타(駒田)에게 「데라사카로부터 사 가지도록」(209)하여 그의 여자가 된다.

고마타라고 불리기 전에 그는 안찬(あんちゃん)이라 불리는 15,6세의 순진한 소년이었다. 공기총 오

락장에 와서 처음에는 「낮에 한 시간정도 놀고, 밤에 또 한 시간정도 놀다」(206) 갔는데, 나중에는 돈을 「숙부네 금고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이다」(208). 이날 밤 공기층 오락장에서 하루코와 데라사카는 이 안찬을 자기의 단칸방 거처로 데리고 온다. 이때의 그들의 방을 잠깐 엿보면—.

「안찬, 이런 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어? 뭔가 나쁜 것…….」이라고 데라사카가 말하려는 것을 오히려 억누르듯이,

「바보 같은 소리 마, 경찰도 아닌데. 걱정말고 자요. 안찬, 늦었어.」

잠자리는 하나이다. 데라사카는 바로 잠들었다. (208)

하루코가 「알몸을 거울에 비추고 나서 한 달」(207) 뒤의 일이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하루코의 변신에 내노라 하는 「데라사카와 같은 백발백중의 명수」(206)조차도 「어안이 병병」(207)해한다.

이와 같은 하루코의 변신은 아사쿠사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변신에는 데라사카처럼 아사쿠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내조차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종전의 여자에서 완전히 다른 여자로서의 변신, 시골 여관의 순진한 식모로부터 아사쿠사의 여자로서의 변신, 그녀는 변신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여자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아사쿠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천부적인 여자였던 것이다.

유미코는 아사쿠사라고 하는 거친 세파와 싸우며 살아가기 위해 남자가 되려 했던 여자이나, 하루코는 아사쿠사라고 하는 거친 세파를 타고 넘어가기 위해 여자 중의 여자가 되었던 것이다. 파도를 타려면 파도와 싸워 이겨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파도에 맡긴 채 가는 방법도 있다. 전자는 유미코의 방법이고 후자는 하루코의 방법인 것이다.

하루코 「그녀는 어떤 여자보다도 어딘가 보다 많이 여자이다」. 「진짜 여자에게는 비극이 없다. 하루코를 보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루코에게는 비극이 없다, 고 생각케 하는 대신에 진짜의 여자에게는 비극이 없다, 고 믿어버리게 한다」(124). 여자에게는 비극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의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가 좋아하는 건 아키코. 남자의 유미코 산. 아키코는 연하인 주제에 나를 꼭 귀여워하려 해요. 나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 속으로. 긴방진 데가 그럴 듯해 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 한심한 거겠지요. 어느새 귀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자란 이런 거잖아요? 남자에게는 놀림만 당하고……. (134).

여기에서의 여자란 남자에게 사랑 받고, 놀림도 당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또 「남자 앞에 나오면 나 바로 쉬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 무엇인가 하는 거, 전혀 필요 없어—일부러 생각하는 것도 아니예요. 나도 하여튼 이래봐도 말야, 여자 혼자서 먹고 살아가는 걸.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생활의 수면제야, 남자란」(135)이라고도 말한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안심하고 잠들 듯이 여자란 남자 옆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자에게 있어서의 남자란 수면제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녀의 이어서 하는 말은 「간논 극장(觀音劇場)의 대간판처럼」 「유미코 산은 남자와 찬찬바라바라<sup>12)</sup>야」(135)이다. 유미코는 남자와 싸우며 살아가지만 자기는 남자에게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루코의

견해는 「유미코 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불쌍하고, 내 입장에서 본다면 유미코 산은 불쌍」(134)하다는 것이다.

(전략) 한 명의 사내가 갑자기 그녀를 안고 입을 맞쳤다.  
 제 이의 사내는 말없이 그녀에게 입을 맞쳤다.  
 뒤의 두 사람도 순서를 기다려 조용히 입을 맞쳤다.  
 그러는 동안 하루코는 품에서 손도 빼지 않고 눈을 감고 서 있었는데,  
 「아사쿠사 탐의 신부야, 나. —너 입술연지 가진 거 없니?」(145)

예의 그 육층탑에서이다. 갑자기 다른 작자의 작품을 끼워들여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여튼 여기에서의 하루코에게서는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내가·버린·여자』<sup>13)</sup>에 등장하는 버림 받은 여자 미즈(シ)가 연상된다. 그녀는 자기의 여자를 한 사내에게 주었던 것인데, 쾌락을 위해서도 사내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사내가 원하였으므로 첫 경험의 아픔만을 느끼며 주어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하루코도 사내들이 하는 대로 자기의 입술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엔도가 미즈를 통하여 그리려 했던 것은 성모 마리아였으나, 가와바타는 하루코를 통하여 그녀의 말처럼 아사쿠사의 신부, 즉 만인의 연인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하루코가 여자 중의 여자임에 비해,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아직 여자가 안된 여자와 여자가 소멸되어버린 여자가 있다. 전자는 이제 겨우 「금년 삼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열네 살」(177)의 소녀로 몸을 팔아 가족생계의 기둥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家計라던가 生計 같은 복잡한 것을 아직 모르는 천진스러운 소녀일 뿐이다. 사내들을 손님으로 맞고 나서도 「오늘은 아팠다던가 아프지 않았던가」(185)라고만 말할 정도로 그녀는 자기의 행위가 뜻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나이에 비해서도 늦된 소녀였던 것이다. 아직 여자가 되려면 수많은 낮과 밤을 기다려야만 하는 여자인 것이다.

반면 후자는 「예순 두 살」로 「죽을 때까지 여자로서 일」을 한 「오킨(お金)이다. 오킨은 에도 시대(江戸時代)에 체법 평평거리며 살았던 무사인 하타모토(旗本)의 딸로 태어났으나 집안은 이미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 몰락한지 오래였다. 그녀는 「열여섯 살에 가와고시(川越)에 酌婦로 팔려갔고, 「서른 한 살에 도쿄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오십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이제 거리에서 사내들의 소매를 끌고 싸구려 여관을 전전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금방 육십이 가까워져서는 그늘에서 별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맨땅 위에서 기거했다. (중략) 상대가 대개 부랑자이기 때문이다. 예순 두 살로 길 가운데에서 죽은 것은 오킨의 그런 대로의 죽음의 꽃(死花)이었던 것이다. 죽을 때까지 여자로서 일했기 때문이다. (188)

60세에 몸을 팔다니 놀라운 일이다. 오킨, 그녀는 여자 아닌 여자로서 여자를 팔았던 것이다.

여자 중의 여자 하루코와 아직 여자가 안된 여자 및 여자가 소멸되어버린 여자의 비교는 하루코의 여자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소녀와 오킨의 여자는 암컷으로서의 여자임에 반해 하루코의 그것은 품성으로서의 여자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2) 「ちゃんちゃんばらばら」: 칼싸움

13) 遠藤周作『わたしが .棄てた .女』(講談社, 1972.12)

하루코는 여자 중의 여자임과 동시에 이상한 미적 감각의 여자이다. 「기중기」의 「키다란 강철 팔이 내려오고, 그 사슬 소리에 하루코는 눈을 가늘게 떠 바라보며」, 「아아, 목을 매고 싶어. 저 것에 매달려 쭈욱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언제나 생각해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빨간 옷으로 멋을 내고, 이리저리 몸부림치면서, 그게 좋아요, 높이 매달려 올라가 폭 늘어지면 강물에 풍덩—」(136)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루코는 이와 같은 이상한 미적 감각을 잠재워둔 채 「나 같은 바보는 여자의 결점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 가장 편안」(157)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여자의 결점이란 수동적이며 고분고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 게다. 그녀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여자의 여자다운 것이라고 자신에게 타일러야 했던 것은, 이것을 「여자 혼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의 세계에서 유미코와 하루코를 비교해본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유미코는 그 이름 유미(弓;활)가 말하듯이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하루코에게는 그게 없다. 유연하고 느슨한 데가 있다. 유미코는 남자와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하루코는 남자를 따르며 살아간다. 가타오카 료이치(片岡良一)는 「『아사쿠사구레나이단』과 그 작자」에서 「오하루가 『여자』인 대신 『인간』을 잃었다고 한다면, 유미코는 『인간』이려고 『여자』가 아니게 되어— 오히려 스스로 『여자』를 버렸」<sup>14)</sup>라고 말한다. 인간이기 위해서는 인격이나 자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게다. 그렇다면 여자에게는 인격도 자아도 없다는 말이 된다. 적어도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의 세계에서는 그러하다.

그렇다고 하루코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는 일엽편주로 시종을 일관한 것은 아니다. 닷새 간의 나체로부터 자진하여 데라사카의 여자가 된 것도 다름 아닌 그녀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결과였고, 자기 자신을 고마타에게 데라사카로부터 사 가지도록 하여 그의 여자가 된 것도 생존의 방법이였다.

그렇다고 하루코가 고마타에게 데라사카로부터 자기를 사게 한 것은 생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이로부터 상처받은」 고마타인 「소년의 슬픔을 보」(209)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파스한 여자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하여튼 오륙 년간 고마타는 하루코에게 붙어 다니며 아사쿠사를 건너왔는데, 하루코 자신의 말을 빌리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생동감이 없어졌다. 칠칠치 못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마타는 지금도 역시 무엇인지 모를 것에 대한 매력에 끌려 멍하니 꿈을 꾸고 있」으니, 「마음에 생기가 있는 아가씨와 다시 한번 살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유미코에게 부탁하는 것이다」(209). 그녀는 파스한 마음뿐 아니라 깔끔한 성격을 내면 한쪽에 간직하고 있는 여자였던 것이다. 결국 하루코라고 하는 일엽편주는 아사쿠사라고 하는 바다의 거친 바람과 물결을 숨씨 좋게 이용하여 훌륭한 항해를 계속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녀는 유미코도 「나를 보고 배워야 한다」(157)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의 모두에서 유미코와 하루코, 두 여자의 역할을 합하면 주인공으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II」에서는, 유미코는 절반은 남자라 할지라도 절반은 여자임에 틀림없다고도 언급했다. 그런데 유미코의 절반은 남자인 부분을 하루코로 바꾸어 넣는다면 이상형의 여자가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14) 三枝康高 『川端康成入門』(有信堂、1975.11) 207P.

## 맺는 말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의 아사쿠사는 악의 매연으로 오염된 도시공간이다. 여기저기에서 범죄의 냄새가 나고, 일반인보다 형사가 많다고 하는 느낌까지 드는 게 이 아사쿠사이다. 도시는 악의 온상으로 적당하다. 여기에 불황이 덮치면 악의 온상으로서의 기능은 강화된다. 1929년 무렵의 일본은 심각한 불황으로 허덕이어야만 했다. 이는 아사쿠사를 악의 소굴로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은 이와 같은 아사쿠사를 쓴 소설이다.

이러한 아사쿠사에는 거지·부랑인 등으로 넘쳐나는데, 이들은 죽지 못하여 산다기 보다 어제에 밀려 그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거지들이 얻어다 먹고 남은 것을 영세민들이 사다먹는, 옷을 수 없는 희극이 연출되는 곳이 이 아사쿠사인 것이다. 열 네댓 살 이하의 소녀나 마흔을 넘긴, 거지나 부랑인 상대의 창녀 고카이야도 이 아사쿠사의 주민이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지진으로 무너져버린 폐허를 재건하려는 희망이 있다.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 속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애환이 있고, 가슴 저리게 하는 애뜻한 사랑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사쿠사를 유미코와 하루코라고 하는 두 여자가 작품세계를二分하여 전반은 유미코가, 후반은 하루코가 분담하여 살아간다. 유미코는 구레나이단의 단장으로 자유자재로 변장을 하여 변신한다. 지진 때 버림받은 언니의 사랑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여자이기를 거부하여 남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은 억눌린 여자를 본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 열망으로 뜨겁다.

유미코는 이 열망을 이루어줄 남자를 찾기 위해 변장하여 변신을 거듭한 것이다. 의식의 위에서는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카키를 찾고 있었으나 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여자를 되찾아줄 상대로서의 아카키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카키는 이미 자기의 사랑에 불을 붙여줄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남자를 찾기 위해 그녀는 변장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고양이잡이 바이코가 날카로운 칼 유미코로 사랑을 요리하고 싶어 그녀를 낚으려다 오히려 그녀의 변장에 낚이고 말았는데, 그녀는 그 바이코를 자신의 수하에 두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을 돕도록 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그녀는 자기의 남자를 찾는 데에 그를 쓰게 될 것이다.

유미코는 아카키에게 아비산의 키스를 한 뒤 작품세계로부터 행적을 감추는데, 그녀의 뒤를 이어 하루코가 활동을 시작한다. 하루코는 여자 중의 여자로서 작품세계에 등장한다. 그녀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여관에서 식모살이를 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 아사쿠사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알고 순응하던 그녀였으나 아사쿠사는 그녀로 하여금 그 숙명을修正이 가능한 운명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이다.

하루코의 수정 가능한 운명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은 철저하게 여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녀에게 있어서의 여자란 남자를 거역하지 않고 따르며 사랑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는 남자의 소유물이면서 자기를 소유한 그 남자를 거느리는 변신을 이룬다. 그녀는 테라사카가 돈을 주고 샀으므로 그의 소유였다. 그리고 또 그녀는 고마타가 테라사카로부터 샀으므로 고마타의 소유가 되었던 것인데, 피소유물인 자기가 소유주인 남자를 거느리게 된 것이다.

유미코와 하루코는 모두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그녀들의 활동범위가 작품의 전반기와 후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여자를 합하여 한 주인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은 아사쿠사라고 하는 악의 바다를 유미코와 하루코라고 하는 작은 두 배가 각각 전반과 후반을 담당하여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저어

가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아사쿠사에 오면 누구나 변신한다. 유미코도 변신했고 하루코도 변신했다. 換言하면 「아사쿠사는 모든 낡은 모양을 녹여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시키는 鑄物場」(75)인 것이다. 결국 『아사쿠사구레나이단』은 이 주물장에서 鑄造된 두척의 작은 배가 아사쿠사라고 하는 거친 바다를 향해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2002. 4. 27. 발표>

K C I



## 【参考文献】

- 関井光男(1987.12) 「『浅草紅団』と浅草の都市空間」(『国文学』〈学灯社、1987.12〉 所  
収) 67P
- 網野義紘(1999.11) 「浅草と川端文学」(羽鳥徹哉編集『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川端康 成  
旅とふるさと』〈至文堂、1999.11〉所収) 97P
- 岩田光子(1983.10) 『川端文学の諸相—近代の幽艶』 桜楓社 134P. 128P. 129P.
- 三枝康隆(1975.11) 『川端康成入門』 有信堂 195P.
- 上田真(1974.3) 「『浅草紅団』の内在的意識」(川端文学研究会編『川端康成の人間と 芸  
術』〈教育出版センター、1974.3〉所収) 84P.
- 高橋真理(1990.6) 「亜硫酸と望遠鏡—『浅草紅団』の方法—」(羽鳥徹哉編『日本文学研究資料新  
集27 川端康成 日本の美学』〈有精堂、1990.6〉所収) 120P.
- 遠藤周作(1972.12) 『わたしが.棄てた.女』 講談社(1972.12)
- 三枝康高(1975.11) 『川端康成入門』 有信堂 207P.

K C I

## Abstract

Asakusa described in *Asakusagurenaidan* is a city polluted with the smoke of evil, and crowded with beggars, vagabonds, and prostitutes. However, we can find here the hope to reconstruct the city ruined by the earthquake. In this city two girls, Yumiko and Haruko, are leading their lives, with Yumiko as a major figure in the first part of the novel and Haruko as a major figure in its second part.

Yumiko, shocked at the unhappiness of her elder sister abandoned by her lover at the time of earthquake, is determined to live as a male, not as a female and lead a male life. But her deep consciousness urges her to recover her feminine nature.

Yumiko disappears from the scene after the poisonous kiss to Akaki, and she is displaced by Haruko, who emerges as a feminine female figure. Haruko is confirmed her fate as her destiny, but Asakusa transforms her destiny into the fate to be regulated. Her determination to lead a life of fate to be regulated makes her lead a life of absolute femininity.

Asakusa in *Asakusagurenaidan* is a world where the ships of the *Yumiko* and the *Haruko* make fresh voyages over, with the *Yumiko* in the first part of voyage and the *Haruko* in the second. *Asakusagurenaidan* is a story of sailing of the two small ships builded in the shipyard of Asakusa over the stormy ocean of Asakusa.

키워드 : 아사쿠사, 구레나이단, 칼날, 여자, 남자

투 고 : 2002. 11. 30

2차 심사 : 2002. 12. 14

3차 심사 : 2003. 1. 14

住 所 :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305-707)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60-1 한울APT 105-1103

電 話 : 042-821-5379

E-mail : j-seok@cnu.ac.kr